

# 특허청, 개도국에 케이(K)-발명교육 비법(노하우) 전파한다

- 「2023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사 리더십 초청 연수」 진행(11.20~27) -
- 캄보디아 이집트 등 5개국 참석...한국형 발명교육 개도국 전파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20.(월)~27.(월)까지 한국형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2023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사 리더십 초청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본 과정은 개도국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만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된 체험적이고 현장 중심의 발명교육을 전수해, 개도국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체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전파하기 위해 개설됐다.

연수에는 캄보디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이집트, 베트남 등 5개국\*의 교육부, 상무부 등 고위공무원과 교장·교사 15명이 참여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광역발명체험교육관(경주) 등에서 이론교육과 현장 체험교육을 병행해 이뤄진다.

\* 참가국 : 캄보디아, 이집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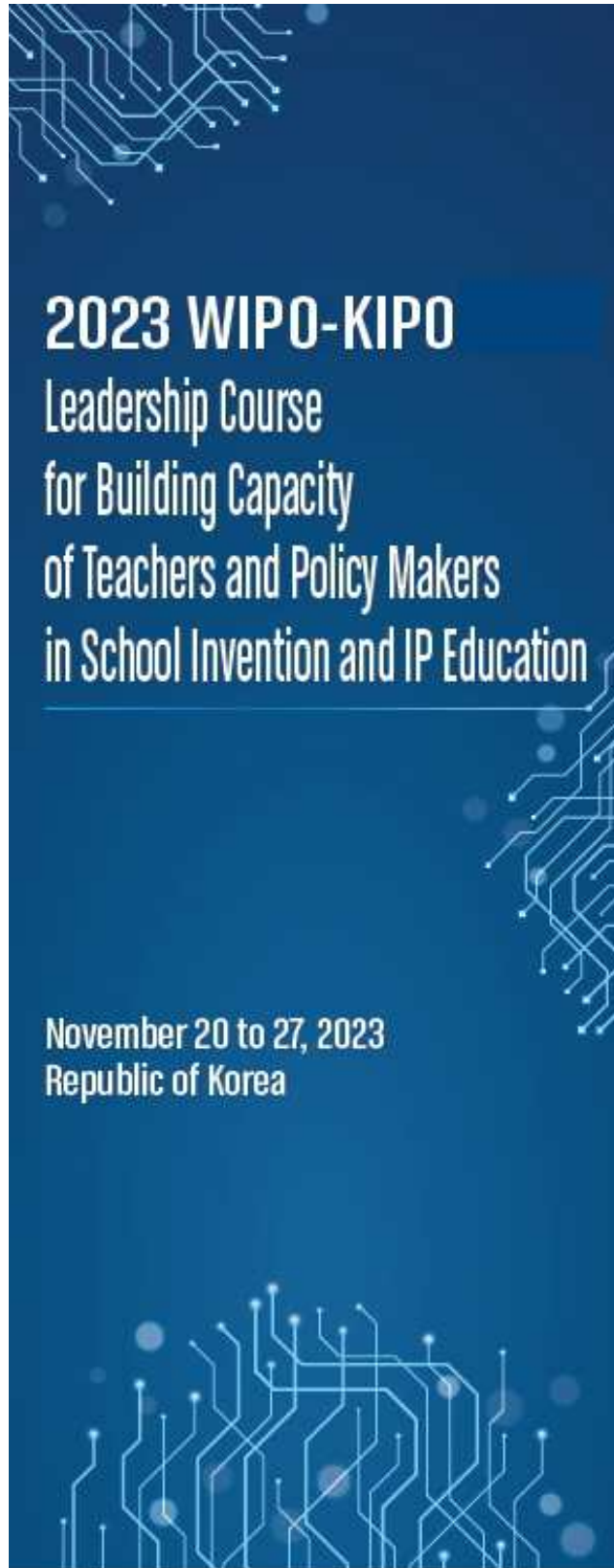
교육 내용에는 ▲한국의 발명·지식재산 교육 정책 및 법·제도 ▲생각(아이디어) 창출 기법 ▲실습 중심의 발명교육 체험 ▲발명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등이 포함돼 있다.

본 과정을 통해 개도국 공무원과 교사들이 한국형 발명교육을 이해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참여한 공무원·교사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 한국형 발명교육을 참고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윤세영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과장은 “이번 과정이 개도국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한국형 발명교육의 우수함을 알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개도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 특허청의 우수한 발명교육 모델을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2023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사 리더십 초청 연수 배너 및 개요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이윤혁 (042-481-5568)



## □ 추진 배경

- (배경) 한국형 발명교육 해외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한국형 발명교육 도입을 원하는 수원국 대상 초청연수 실시
- (목적) 개도국 공무원·교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발명교육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발명교육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도입 의지 확인

## □ 과정 주요 내용

- 교육명 : 2023 KIPO-WIPO Leadership Course for Building Capacity of Teachers and Policy Makers in School Invention and IP Education
- 기간/장소 : '23. 11. 20(월) ~ 11. 27(월) 8일간/ 서울, 대전, 경주, 구미
- 교육대상 : 캄보디아, 이집트 등 5개국 발명교육 관련 공무원·교사 15명
- (주요 내용)
  - 한국의 발명·지식재산 교육 정책, 법·제도, 발명·IP 교육의 역사, 정규 교과와의 연계 등 한국의 발명교육 우수성 전파
  - 발명교육 이론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 실습 등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한 융합 심화교육
  - KAIST IDEA Factory, 경주 광역발명체험교육관, 구미발명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 견학
  - 한국형 발명교육 시스템을 참가자와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발명교육 과정 개발 방향 제시 및 인력양성·교육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제공